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드 No. 4

지역 감정과 대통령 선거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등 야권 대표 주자들에 이어, 2012년 7월 10일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다. 이로써 대선 경쟁 레이스는 한층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금부터 대선은 세대별, 이념별, 지역별, 계층별 경쟁 구도에 의해 확산될 것이다. 이런 경쟁 구도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중 ‘지역 감정’이라고 표현되는 지역 간 경쟁 구도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회 현상 중 하나다. 1992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¹의 ‘우리가 남이가?’라는 인식은 20년이 지난 2012년 현재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는 지역 감정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까?

여러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역별 대선 후보 지지도 패턴은 어느 정도 고착되어 있다. 그렇기에 더욱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광주/전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 대구/경북에서,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 또는 야권 후보에게 얼마나 표를 줄지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갤럽이 데일리정치지표 2012년 상반기(1~6월) 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대선 후보 지지도 흐름과 지역 간 인식 차이, 지역 내 유권자 특성별 차이를 분석했다.

작성 2012년 7월 12일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주요 내용

- 2007년 제17대 대선까지 지역 감정은 강력한 영향력 발휘
광주/전라에서 이명박 득표율 9.0%, 대구/경북에서 정동영 득표율 6.4%에 그쳐
2007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지역 감정에 의한 지지 경향 강해져
- 2012년 2분기 현재,
광주/전라에서 연령에 따른 후보 지지도 차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에서 50대 이상 고연령 박근혜 초강세, 30대 이하 박-안 경합

¹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12월 15일, 국민당 부산 기관장들의 12월 11일 모임 대화록과 녹음 테이프가 모든 언론에 공개됐다. 모임 참석자는 전 법무부장관, 부산시장, 안기부부산지부장, 부산 경찰청장 등이었고 이들은 여당의 김영삼 후보를 관권을 동원해서라도 밀어야 한다며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당시 이들이 모인 장소 이름을 따라 ‘초원복집 사건’으로 불린다.

조사 개요

1. 모집단: 만 19세 이상 남녀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19,585명
(광주/전라 2,009명, 대구/경북 2,030명, 부산/울산/경남 3,109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4월 2일~6월 29일(매주 월~금, 단, 공휴일 제외)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95% 신뢰수준): 전국 $\pm 0.7\%$ 포인트
(광주/전라 $\pm 2.2\%$ 포인트, 대구/경북 2.2%포인트, 부산/울산/경남 1.8%포인트)
7. 응답률: 조사기간 내 평균 18%

2007년 제17대 대선까지 지역 감정은 강력한 영향력 발휘:

광주/전라에서 이명박 득표율 9.0%, 대구/경북에서 정동영 득표율 6.4%에 그쳐

지난 대선까지 유권자의 지역 감정(차이 또는 갈등)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경북 포항 출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전국적으로 48.7%를 득표했지만, 광주/전라에서는 9.0%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전북 순창 출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80.0% 득표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대구/경북에서 이명박 후보는 71.1%를 득표했지만, 정동영 후보는 단지 6.4%를 얻었다.

▶ 제15, 16, 17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실제 득표율 (단위: %)

지역	유권자 비율	現 여권 후보 실제 득표율			現 야권 후보 실제 득표율		
		제15대 한나라당 이회창	제16대 한나라당 이회창	제17대 한나라당 이명박	제15대 국민회의 김대중	제16대 민주당 노무현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전국	100	38.7	46.6	48.7	40.3	48.9	26.1
서울	21	40.9	45.0	53.2	44.9	51.3	24.5
인천/경기	28	35.7	44.3	51.4	39.1	50.5	23.6
강원	3	43.2	52.5	52.0	23.8	41.5	18.9
대전/충청	10	27.4	41.3	37.1	43.9	52.5	22.6
광주/전라	10	<u>3.3</u>	<u>4.9</u>	<u>9.0</u>	94.4	93.2	80.0
대구/경북	10	66.9	75.5	71.1	<u>13.1</u>	<u>20.2</u>	<u>6.4</u>
부산/울산/경남	16	53.8	65.3	56.2	13.7	29.4	13.0
제주	1	36.6	39.9	38.7	40.6	56.1	32.7

2007년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지역 감정에 의한 지지 경향 강해져

지역 감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사전 여론조사에서 보다 실제 투표 결과에서 그 영향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데 있다.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전국, 지역별 이명박 후보 지지도 추이를 살펴보자.

2007년 3월, 광주/전라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무려 38%에 달했다. 전국 지지도와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6개월 전인 6월에는 25%, 정동영 후보가 부상하기 시작한 9월 이후 20% 아래로 하락했으며 대선 D-7일인 12월 12일에는 지지도 18%를 기록했다. 선거 당일 최종 득표율은 이보다 더 낮아 D-7 지지도의 절반인 9%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세를 그렸다.

반면, 대구/경북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도는 한나라당 후보 경선 이후 8월 이후 70% 가까이 상승했으며 실제 투표 결과 최종 득표율은 71%에 이르렀다.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다.

▶ 2007년 대선 지역별 이명박 후보 지지도 추이 (단위: %)

지역	2007년 언론에 공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12/19 선거일 최종득표율
	1/17	3/19	6/9	8/23	10/29	11/25*	12/12	
전국	51	44	41	61	54	38	45	49
광주/전라	36	<u>38</u>	25	22	19	15	18	<u>9</u>
대구/경북	57	45	43	66	69	45	65	71
부산/울산/경남	47	34	46	67	59	42	40	56

*2007년 11월 7일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기존 한나라당 표심이 분산되어 11월 25일 조사에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의 이명박 후보 지지도가 급락했다.

2012년 6월, 광주/전라 박근혜 21%, 대구/경북 안철수 20% 지지

올해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 감정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까? 현재까지 여야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안철수 두 후보의 양자 구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2012년 6월, 박근혜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21%, 안철수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20%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전국 지지도 기준으로는 박근혜 46%, 안철수 38%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에서 두 후보의 지지도는 전국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역별 후보 지지도의 추세를 보면

- 광주/전라에서 박 후보 지지도는 1월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 후보 지지도는 60~67%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그러나 6월 안 후보 지지도 60%는 올해 월별 지지도 중 가장 낮다.
- 대구/경북에서 안 후보는 1월 30%에서 6월 20%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반면 박 후보는 4월 60%에서 6월까지 7%포인트 상승했다.

- 부산/울산/경남은 안 후보의 고향이지만 6월 현재 지지도는 박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1월 안 후보 지지도는 41%였지만 5월까지 점진적으로 30%까지 하락한 상태다.

▶ 2012년 1~6월 지역별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 박근혜-안철수 양자 구도 (단위: %)

2012년	광주/전라(716명)*			대구/경북(723명)			부산/울산/경남(1,107명)		
	박근혜	안철수	모름/ 무응답	박근혜	안철수	모름/ 무응답	박근혜	안철수	모름/ 무응답
1월	16	62	22	59	30	12	48	41	11
2월	14	67	20	65	26	9	53	33	14
3월	21	63	17	64	25	11	51	35	14
4월	18	67	15	60	23	16	51	34	16
5월	17	62	21	63	21	15	55	30	15
6월	<u>21</u>	60	19	67	<u>20</u>	13	54	30	15

*6월 기준 지역별 사례수, 위 지역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7%포인트/±3.6%포인트/±2.9%포인트

광주/전라에서는 연령에 따른 후보 지지도 차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아

광주/전라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도는 시도, 성, 연령에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50대 이하에선 60% 이상이지만 60세 이상에서는 50%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 정도가 눈에 띈다. 산업화 세대인 60세 이상에는 ‘박정희 향수’가 존재하고 IT 기업인 출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시도 중에서 박 후보 지지도는 전북에서 25%로 가장 높았고, 안 후보 지지도는 광주에서 72%로 가장 높았다.

▶ 광주/전라 지역 2012년 2분기 대선 후보 지지도: 박근혜-안철수 양자 구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박근혜	안철수	모름/무응답
광주/전라 전체		2,009	19	63	18
시도	광주	540	14	72	13
	전라북도	722	<u>25</u>	56	19
	전라남도	747	16	62	21
성별	남성	989	19	65	16
	여성	1,020	19	60	21
연령별	19~29세	349	21	67	12
	30대	366	16	69	15
	40대	415	16	68	17
	50대	362	18	64	18
	60세 이상	517	<u>23</u>	50	26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50대 이상 고연령에서는 박근혜 후보 초강세, 20, 30대에서는 박근혜-안철수 후보 경합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연령대별 후보 지지도 차이가 매우 컸다. 대구/경북 60세 이상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도는 80%에 달한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60세 이상의 박 후보 지지도는 80%에 가깝다.

한편, 대구/경북 20, 30대에서 박근혜, 안철수 양자의 지지도는 경합이며 부산/울산/경남 20, 30대에선 오히려 안 후보가 앞선다. 안 후보의 고향이 부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역 감정 표출로 볼 수도 있으나, 정작 지역 감정 투표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의 안 후보 지지도는 미약한 수준이다.

▶ 대구/경북 지역 2012년 2분기 대선 후보 지지도: 박근혜-안철수 양자 구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박근혜	안철수	모름/무응답
대구/경북 전체		2,030	64	21	15
시도	대구	966	63	24	14
	경상북도	1,064	65	19	16
성별	남성	1,001	64	23	13
	여성	1,029	63	20	17
연령별	19~29세	359	41	<u>40</u>	19
	30대	376	49	<u>38</u>	13
	40대	436	65	<u>23</u>	12
	50대	394	<u>78</u>	9	13
	60세 이상	465	<u>80</u>	3	17

▶ 부산/울산/경남 지역 2012년 2분기 대선 후보 지지도: 박근혜-안철수 양자 구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박근혜	안철수	모름/무응답
부산/울산/경남 전체		3,109	53	31	15
시도	부산	1,420	54	33	13
	울산	420	54	32	13
	경상남도	1,263	53	29	19
성별	남성	1,539	51	34	15
	여성	1,570	56	28	15
연령별	19~29세	561	35	<u>51</u>	14
	30대	606	37	<u>47</u>	16
	40대	679	51	32	17
	50대	628	<u>64</u>	21	15
	60세 이상	635	<u>77</u>	8	15

결론적으로 올해 대선에서도 영호남 간 지역에 따른 지지도 차이는 클 것이다. 현재 광주/전라에서 박근혜 후보, 대구/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20% 정도지만 본격적인 여야 대선 경쟁이 펼쳐지면서 지역 감정이 자극되면 이전 선거에서처럼 해당 지역에서 이들의 지지도는 10%대 후반, 또는 그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다.

‘이왕이면 지역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지사정(人之常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문제 해결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이나 판단 능력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후광 효과(halo effect) 삼아 득표를 노리는 것은 다수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한 민주주의 실현에 걸림돌이다. 최근 여러 선거에서 젊은 세대는 어느 정도 지역 감정을 극복하는 정치적 선택을 해 왔다. 올해 대선에서는 지역 감정이 어느 지역에서 더 강하게 대물림 될 지, 어느 후보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 공세로 더 이득을 보려 할 지 두고 볼 일이다.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12년 1월부터 자체 조사하여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제공하는 정치지표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휴대전화 RDD 조사) 매일 300명 이상, 매주 1,500명 이상 유효표본(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을 인터뷰합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이전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와 블로그(gallupkorea.blogspot.com)에 공개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구독 신청](#)하시면 주간 리포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매월 초에는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월간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매월 1~4주 통합 결과를 담은 월간 지표는 유효표본 6,000여명 규모로 전국 8개권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념성향별 단위에서도 의미 있게 추이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26개 분석 단위 중 강원, 제주 지역, 그리고 농/임/어업 직업군을 제외한 23개 분석 단위의 유효표본은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트>는 일간, 주간, 월간 정기 지표의 숨은 의미 해석, 장기적 추세, 특정 이슈와 연계한 해석 등을 담은 별도의 분석 리포트입니다.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트는 부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